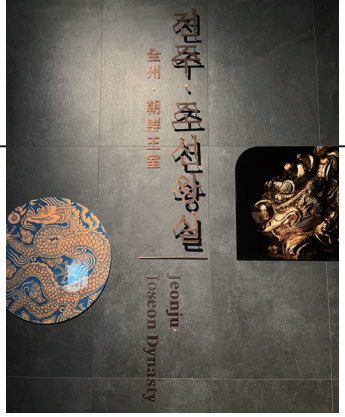


조선왕실의 본향,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곳

국립전주박물관

조선 왕실의 선조들이 뿌리내리고 살던 지역 전주. 조선왕조를 개창(開創)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왕실의 본향'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전주는 왕실과 백성들이 모두 소중히 아끼고 지킨 역사적 공간이다. 조선 왕실과 지역민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연결된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았다.

글 신경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국립전주박물관

<의친왕 이강이 쓴 초서 병풍>

<태조 이성계 어진>

<전 낙수정 동종 - 고려 10-1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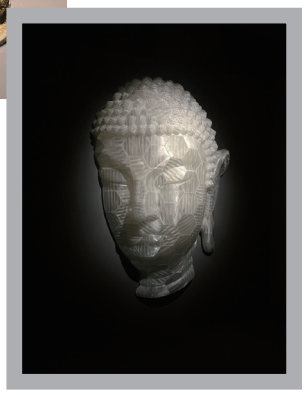
조선왕조의 500년 뿌리, 전주의 역사를 찾아서

전주에서 가장 큰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연구·전시·교육하는 한편 국내외의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1990년 10월 26일 문을 열었다. 전북에서 발굴·출토된 고고 유물을 비롯하여 역사 자료, 서화, 도자기, 공예 미술품 등 중요 문화재가 4만여 점에 이르며,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여 특별전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1층의 대표적인 '역사실'은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를 개괄한다. 선사시대부터 마한, 백제, 가야, 후백제 유적에 이르기까지 엄선된 고고 유물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선사 및 고대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2층의 '전주와 조선왕실'은 <태조어진>, 「어제수덕전편」,

<관세음보살상 고려13세기>



<미륵의 마음>

예종 태항아리 등의 유물이 전시돼 있어 조선왕실과 전주의 관계를 조명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용비어천가」, 「선원계보기략」, <제고지보>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불교미술, 진리를 담다

7월의 뜨거운 햇살과 무더위를 피하고자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어린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내 위치한 이곳은 1층 '기획전시실', 2층 '학습방·자료실', 3층 '어린이박물관전시실' 등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만나볼 수 있는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

불교는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국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미의식을 담은 예술품을 만들어 불심을 표현했다. 불교 미술품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오롯이 담고 있다.

최근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였다. '영상 놀이터', '쌓고 노는 문화재 놀이터', '훈장님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된 이곳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역사·문화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자들에게 추천한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문화재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립전주박물관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전주박물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10:00~18:00
휴무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063)223-5651~2